

GRACE 선교소식

2025년 2월 GMI-GKC 선교사 현황: 63개국 337명 (자체 파송 75%)

2025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우리 교회는 매년 새해를 은혜이슬 특별 새벽 기도회와 신년 축복성회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새해 표어는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입니다. 이 주제로 드린 특별 새벽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밥 소르기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은사, 선물인 새벽기도, 금식기도, 통성기도를 놓치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받은 은사를 다시 뜨겁게 일으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금식기도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고, 많은 교역자와 성도님들이 함께 금식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주 신년 축복성회를 통해서도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이신 하근수 목사님께서서는 깨달은 말씀을 삶과 사역에 적용하여 열매 맺은 간증들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집회의 주제는 “0점 인생도 명품 인생이 될 수 있다”였습니다. “인사만 잘해도 먹고는 산다”는 단순한 표어 같지만, 결국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고, 섬기는 교회가 된 놀라운 열매였습니다. 목사님도, 교회도, 모두 0점과 같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명품 인생, 명품 교회가 된 비밀을 선포하는 은혜로운 축복성회였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국가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 정부가 출범한 미국을 위해, 그리고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LA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비상한 인도하심을 간구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환난 중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시 50:15)라는 말씀처럼,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쿠바선교: 2/2-2/8
- 성도양육과정 개강: 2/12
- 은혜동산 말씀축제: 2/18-2/20(목)
- GMI은혜교회(서울)신년축복성회: 2/21-2/23
- GIGL#9 및 인도 신학교 입학식: 2/24-2/28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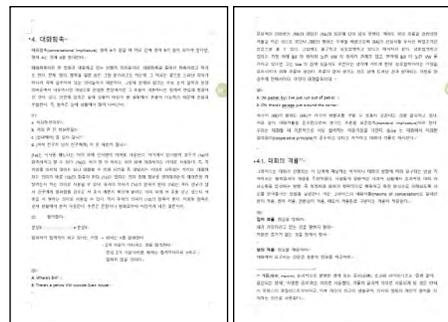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파푸아뉴기니

김운용 / 남영미 선교사

김운용 선교사는 GBT 선교사를 대상으로 의미론 세미나를 한 이후, 2025년 상반기에 있을 화용론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재(359페이지)를 만들었고, 교재를 토대로 강의용 PPT를 만들고 있습니다.

의미론과 화용론은 동일하게 의미에 관한 학문이지만 연구 대상이 다릅니다. 두 학문 모두 문장의 의미를 다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의미론은 단어와 문장의 의미를 다루고 “말해 진 것”을 대상으로 하고, 화용론은 문장의 의미를 다루지만 “말하려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화용론은 사회언어학, 텍스트 언어학, 담화 분석 등과 깊은 관계가 있기도 합니다. 화용론을 GBT 선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성경 번역과 설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용론과 담화 분석과 관계가 있는 응집성과 일관성에 대해 다루고, 의미론과 화용론의 경계에 있는 전제, 함의, 함축 등을 살펴본 후에 화용론에서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간접화행, 대화격률, 공손성, 발화수반행위와 발화지시체계 등을 성경 구절을 예문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최고의 행복’이라는 전도지

를 각 나라의 언어로 발행하여 현지에서 전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6개 국어로 발행했습니다. 김운용 선교사가 파푸아뉴기니의 공용어인 토티핀어로 번역을 마치고, 현지인들과 크로스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부족에 들어가서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길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영미 선교사는 연약할 때에 강함 주시고, 두려울 때 평안 주시고, 낙심할 때 소망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파푸아뉴기니로 가는 길이 느리고 더더졌음에도 주 안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며, 저희와 함께 주님의 시간을 기다려 주시는 동역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자니아

송교영 / 오호숙 선교사

노아학교

2024년을 시작한 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2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입학할 때 설레임 반 두려움 반의 얼굴로 유치원에 첫발을 내디뎠던 코흘리개 아이가 유치원에서 2년을 공부하고 성장하여 지난 11월 30일 졸업을 하고 떠나 갔습니다. 이제 떠나가는 아이들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곧, 2025년도 새학기가 시작됩니다. 새로운 신입생들 선발과정에서 많은 아이들이 신청을 해서 일일이 가정 방문하여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 3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우기철이 와서 가정 방문하면서 비를 흠뻑 맞기도 하고 길에 물이 차서 신발을 벗고 건너기도 하고 벼락이 칠 때는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걷고 또 걸으며 숲속 이곳저곳 지어진 한집 한집 주소도 없는 집들을 아이 이름만 가지고 묻고 찾아 헤메며 모두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중에 가장 가난한, 물도 없고 전기도 없는 집 아이들을 골라 30명을 선발하였고, KG에서 올라가는 아이들 30명을 합하여 전체 60명의 아이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내년 1월에는 신입생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모시고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학생 유니폼, 가방, 연필, 학용품, 체육복 등을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며, 지역에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을 돕기 위해서 학비와 급식 등을 무료로 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에버그린 학교

11월 28일에 7학년 아이들의 졸업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겁먹은 얼굴로 유치원 때 처음 만났던 아이들이 9년 세월이 흐르면서 거의 어른과 같은 체구로 성장한 모습을 보며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그동안 복음을 심고 기도했던 날들이 헛되지 않고 주님께서 이 영혼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떠나 보냅니다. 7학년들은 8월부터 3개월 동안 합숙훈련을 하며 10월 정부시험을 준비하였는데 시험이 끝나자 아이들이 긴장이 풀어지고 하나 둘씩 부모님과 함께 육지 본가와 친척 집을 방문하기 위하여 일찍 여행길에 오른 아이들도 있어서 11월 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시험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아이들 모두 기대하는 모습이었고 잠시 방학을 통하여 진로계획들을 세우는 부모님들의 상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시험결과가 발표되면 성적에 따라 진학할 학교가 배정되어 9년을 공부했던 정든 에버그린 교정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서 공부하게 되더라도 믿음으로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성장되기를 기도하며 그동안 함께 기도해 주신 동역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지금 신입생 등록과 새학기 준비로 교실을 단장하고 공부시킬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느라 선생님들과 함께 분주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에버그린 학교 건축

현재 에버그린 학교 건축공사는 1층 벽돌과 기둥공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동역해주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공사 계획은 슬라브를 쳐야 되는데 공사 재정이 부족하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동역자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경대학

제10기 성경대학 9명 학생들은 첫번째 팀을 마치고 지금은 두번째 팀 (기도의 능력, 서로 돕는 사역) 과정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대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훈련되어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 나서 주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안마

한규설 / 김정미 선교사

성탄의 기쁜 소식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미안마는 한국과 다르게 12월 한 달 내내 성탄절 행사를 갖습니다. 호산나 교회에서도 주일마다 주민들을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고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현지 사역자의 지인들이 와서 협력하고 교인들도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처음 염려했던 것과는 다르게 현지 사역자가 낯이 성장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은 인원이지만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 열심히 전도하고 주민들을 교회로 초청합니다. 양곤에 산 지도 10년이 넘어서 사역을 도와줄 지인들도 많고 교인들도 가르쳐 전도할 때 동행하게 하고 행사가 있을 때는 봉사하게 합니다. 4주 동안 300명의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여 복음을 들었습니다.

선교사가 시무하는 은혜교회에서도 12월 25



일 지인들을 초청해 주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1부는 예배를, 2부는 특별한 이벤트를 가졌는데 손님들과 함께 춤추고 아이들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연극으로 공연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인들은 열심히 준비한 크리스마스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마지막으로 추첨을 통하여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점심 식사는 미안마의 대표 음식인 모헝가를 만들어 대접하였는데 모두가 맛이 있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사실 이 음식은 맛을 내기가 다소 어렵다는데 젊은 청년이 거뜬히 그 일을 해내었습니다. 남녀 그룹홈 아이들도 함께 행사를 준비하였는데 특히 고등학생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무

엇보다도 행사를 통해 교인들이 하나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남자 그룹홈 아이들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공을 칠 수 있는 운동장도 있고 저녁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자유롭게 산책할 수도 있어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 아이들은 마당이 없고 집 앞이 바로 도로인 주택에 살아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했습니다. 한글학원 수강생 두 명이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최고 등급인 6급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내년에 한국으로 유학 가기를 원하는데 한 사람은 대학교에 다른 한 명을 대학원에 진학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알바니아

오판석 / 정미라 선교사

한달 전에 '요냐' 자매는 아들 여호수아(조슈)를 순산했습니다. 시댁에서 한달 간 몸 조리를 한 후에 지난 주일에 아기와 함께 찾아와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주 어릴 때 엄마는 가출하셨고, 알콜중독 아버지는 지금도 너무나 큰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주님께서는 자매를 애뜻하게 사랑하고 챙기는 남편과 시댁을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지켜보니 자매가 너무



어려서 잘 모르고 또 피곤해서인지 어떻게 아기를 안고 우유를 먹여야 하는지 후에 트럼을 어떻게 시켜야하는지도 모르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가지들을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때론 주님을 떠나서 자기가 좋아보이는 길로 가서 저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기도 하였지만 다시 말씀을 듣고 돌이켜 주님께로 방향을 들고 주님을 찾는 자매를 보며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니샤'는 1월 6일에 한국으로 떠납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서 가기에 저희의 마음이 조금은 안도가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한국에서도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지 않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동생 '수엘라'가 언니가 옆에 없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위축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에스마'는 한국에서 1년을 공부하고 돌아와서 원래 간호학을 전공했기에 간호사로 병원에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너무나 좋은 추억을 많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에 에스마는 한층 더 밝

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부모님의 반대로 예배에 오지 못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먼저 연락이 와서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마음을 어루만지셨나 기대했는데 알고보니 연말연시를 맞아 저희를 보고 싶어서 인사차 찾아왔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만이 최고의 보배임을 깨닫고 믿어서 부모님께 자신의 신앙을 확고히 말씀드릴 수 있기를 기도해봅니다.

이제 고3 마지막 학기를 시작하는 '피요냐'는 부모님의 너무나 강경한 핍박으로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으로 녹화된 예배를 보내주고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체크를 하고 성경과 핸드폰을 빼앗겨서 한동안 예배도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시 '피요냐'가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속사람이 더욱 더 강건해 지도록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무릇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을 잘 지켜서 세운 공력이 남아 있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2025년 새해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이곳 보스니아는 치안이 잘 되어있는 나라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대한 소식을 쉽게 접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의 소식은 마을게 시판을 통해서 자주 봅니다. 이렇듯 죽음은 언젠가는 우리를 방문하고 말 것입니다. 12월이라서 분주하셨을 것 같은데 이곳 보스니아의 제가 있는 제니짜에서는 전혀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철에 들리는 음악도 듣기 힘듭니다. 대신 일주일에 한번씩 금요일 12시에 모스크회당에 모



여서 이슬람식의 기도과 말씀을 듣는 엄청난 인파의 사람들을 봅니다. 멋지고 근사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슬람을 태어날 때부터 접하고 교육을 받다 보니 전혀 뿔래야 뿔 수 없는 한 존재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을 봅니다. 들뜬 분위기가 전혀 없고 인간의 도리를 너무나 잘 지키지만 삶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이슬람의 어두운 분위기를 어렵풋하게 느껴갑니다. 거짓 종교의 영이겠지요.

비자 서류 중 하나인 범죄확인 증명서가 여기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아니라서 12월 3일에 크로아티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에 가야만 했습니다. 한국에서 그 서류가 도착하는 시간이 대략 한달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관에서 연락을 주면 다시 크로아티아에 갔다 와야 합니다. 그 서류만 준비되면 1월 안으로 비자 승인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추위에 관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느 정도 적응은 되었지만 그래도 춥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추워서 집에 들어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집안에서도 발이 시렵기도 하고 너무 추워서 머리가 아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눈이 오면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을 잃고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안 좋았던 공기도 없어져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은근 위로가 됩니다. 언어는 어렵습니다. 굴절이라고 하는데 명사가 7가지 형태로 바뀌다 보니 처음 접하는 저는 외우고 응용하는 것이 무척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익숙한 영어와 스페인어는 명사가 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보스니아어는 격에 따라서 바뀌는 규칙을 외어야 하기에 어느 정도 익숙하기 전까지는 날마다 모험인 것 같습니다. 영어의 사과는 주어나 목적어나 전치사 뒤에서 모두 똑같습니다. 그러나 보스니아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 열심히 하죠! 시간이 지나면 더 잘 하겠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책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해가 간다는 것입니다. 죽어라고 해야겠죠. 그것만이 살길입니다.

벌써 보스니아에 온 지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신 현지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다들 감사히 잘 드셔서 저도 흐뭇했고 종종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이들 사회로 들어가는 저를 발견합니다.

J국

고OO / 이OO 선교사



생명교회 (아할람 가정)

지난 1월 기도가운데 아할람 가정을 통하여 생명교회가 세워지고 이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이 성숙되어야 하지만, 무슬림개종자들이 교회에 나가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가정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여 지며 세 딸(삼, 아야, 쌀

람)과 아할람을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길 기도해주세요.

장학사역

한국의 후원자를 통해 매달 두 아이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나히스입니다. 성적이 우수하고 공부를 계속하고 싶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두 가정의 아이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견디고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록,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영혼 속에 흘러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다음 사역을 위한 새로운 계획들

저희는 2025년 안식년을 통해 병환 중에 계신 부모님을 돌보는 한 해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 돌봄뿐만 아니라 영적 구원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우리의 수고의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주의 완전하신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는 폐암 말기로 항암치료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구원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오직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표적이 나타나게 성령께서 도우시기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자녀 창현이와 은정이는 이제 내년에 대학 졸업과 진로에 믿음과 인내와 감사로 주의 간절한 소망을 온전히 이루어 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간증문

2024년 여름 더 블레싱 선교 후기

김은애 집사 / G1

청년 때부터 선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정작 단기선교조차 갈 기회가 오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고 육아가 시작되고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에서 “가족” 과 함께해야 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가며 영의 목마름은 계속 되어가고, 선교는 더더욱 꿈조차 꾸기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던 찰나에 블레싱에서 LA로 선교여행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이와 함께 도전해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되어 선교에 참여하게 되었다. 멕시코선교를 가는 팀과 LA 다운타운 길거리전도 및 양로원 전도 그리고 홈리스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는 LA팀이 있었는데 내게는 6살과 1살짜리 두 아이가 있었기에 거리상 가까운 LA팀에 합류하여 인생 첫 선교 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깨달았다. 선교는 사탄이 너무나도 싫어하는 일이라는 것을.

가기 전부터 참 많은 영적공격이 있었다. 남편과의 잦은 마찰은 물론이고 뭔가 내 마음이 여러가지 일로 혼잡해져 갔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그저 그 공격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셨다. 차 안에서 아이를 낮잠 재우고 음식릴레이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폭포수같은 눈물을 흐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저 영혼들을 사랑하시는지 알게 하시며 보잘 것 없는 하찮은 나를 그 귀

한 복음 전하는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자 그동안 내게 있었던 전쟁은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있음을, 하나님은 선교하고자 마음먹고 행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게 하셨다.

양로원에 도착하여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연습했던 율동과 공연을 선보였고, 아이들은 어르신들께 “LOVE YOU” 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간 양말, 립밤 등이 들은 작은 선물들을 전달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 아이들의 고사리같은 손을 꼭 붙들고 고맙다고 하시기도 하고, 가만히 미소를 머금고 쳐다보시기도 하셨다. 참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저분들은 어떤 인생들을 사셨을까, 내가 저 나이가 되면 어떤 모습일까. 저들은 지금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지? 어쩌면 우리를 통해 전해지는 찬양이, 그리고 예배가 저들의 인생에서는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음일 수도 있을텐데..’ 내 마음이 급해졌다.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흘러 나왔다. ‘하나님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영혼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는 선교는 그리 쉽지 않은 않았다. 불편함도 있었고 불평도 생겼다. 그렇지만 그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내게 감동을 주시고 간절함도 주시고 계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저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내가 희생해서 선교를 간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아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아니 어쩌면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에 전하러 가는 것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내게 선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고 싶은 나를 위해 갔던 것 같다. 육아에 지쳐 저 밑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내가 불태워지는 가지가 되고 싶지않아서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힘을 다해 나무에만 붙어있자 다짐했던 내게 과실도 맺게 해주셨다. 예배를 사모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영혼을 조금씩.. 아주 조금씩... 바라보게 하신다.

시간이 지난 후, 아직도 블레싱 선교의 추억들이 가슴 뿌듯하게 일어나며, 내년에는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님들에게 자신있게 권하고 싶다. 블레싱 선교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며 그 홈리스들과 양로원의 노약자들과 마약으로 오염된 LA 시에서 온가족이 복음을 전하는 선교를 함께 하자고 말이다.

사랑하는 은혜 한인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저는 강추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사랑하며 하나 되는 가족 문화 부흥이 우리 블레싱 팀 안에 있습니다. 2025년은 블레싱과 함께 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것이 진실한 삶일까

<1분단상 136-2월호>

- 김대규 장로

여러 각도에서 말할 수 있으나 믿음이란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 세상에는 완전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어딘가 부족한 부분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도 완벽한 것처럼 살아간다. 이것이 세상살이다. 그래서 이에 익숙하다보니 자기의 유익을 위해 착각 속에서 스스로 속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런데 이것이 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장 치명적인 치부가 된다.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깨어 있으라고 했다(벧전5:8). 긴장하며 생각하며 주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믿는 자이다. 주어진 현실인 끊임 없는 영적 전장에서 승리해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앞에 경건한 자로 바로 서야한다는 말씀이다. 그러기에 죄 중에 가장 큰 죄와 악은 스스로 속거나 속이어서 자아를 상실케 하는 것이라고 본다. 믿는 자에게는 분명히 성령께서 내주하여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데 이에 상충되어 주님과 이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많은 원인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꺼내라고 한다면 먼저 세상살이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에 대한 기대와 욕망이 진정한 자아를 삼킬 정도로 중요한 가치가 되어 지켜야 할 말씀에 의한 삶을 앞서 나간 결과라고 하겠다.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다. 여기에는 세상살이, 내 가치관, 고집, 명예, 부귀, 쾌락, 기득권, 성취감 등 많은 것들이 엉켜 있다. 한마디로 현실적인 안정이나 만족, 행복을 추구한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과 멀리 멀리 떨어져나가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것으로 기존의 생활관, 습성, 환경, 안일함, 분주함을 놓지 못하고 취해야 할 도리나 하나님의 것을 뒤로 미루는 형태이다. 설령 대수롭지도 않은 세상살이에도 치어서 믿음과 함께 하나님 중심의 삶(거룩, 말씀, 경건, 헌신, 사랑)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일상생활의 모습이다. 내일하면 되지 하고 내일이란

변명으로 차일피일하며 하나님 앞에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다. 게으름은 믿는 자를 쓰러뜨리는 사탄의 계략이며 주 앞에 스스로를 속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

예수님은 게으름을 악하다고 하셨다(마25:26). 비유로 말씀한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이야기, 기름을 준비치 못한 다섯 처녀들의 게으름의 결과는 비참한 것이었다. 악한 것이 되어 별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주님은 주를 위해 인내하며 부지런한 것을 칭찬하셨다(계2:3). 우리는 이를 주목해야 한다. 그러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놓쳐서는 아니 된다. 진정한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믿음은 행함이 관건이다.

믿음(헬:πίστις 피스티스)은 진리에 대한 확신, 믿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와 화해가 된 상태, ...와 친구가 됨을 전제로 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따라서 믿는 자는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세상과 벗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πίστις)이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신실한 행동으로 나타내어야 하며 또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믿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함을 말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의 대부분은 생업, 사회활동, 대인관계 등을 통한 세상살이이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만 그 방법과 목적을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올바른 길로 가야하는데 맞추는 것이다(롬12장). 고로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삶이란 어떠한 지경일지라도 하나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때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그때그때 주어진 말씀에 대하여 본질적인 의미와 메시지를 깨달아 삶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이다.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알고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믿음의 행위는 형식에 그칠 수가 있다. 매일의 삶에서 말씀에 대한 상고와 실천

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엡4:13)라는 말씀을 이루어가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에 붙들리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케 되어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케 되리라고 믿는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충실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로 오늘이라는 현실을 주셨다. 내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롬12:11)고 가르치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 모두는 현존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부지런히 말씀으로 믿음을 행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 하나님의 사람(헬:ανθρωπος θεος, anthropos theos; 안드로포스 데오스): 하나님의 얼굴을 가진 자이며 하나님으로 채워짐으로써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서 그분과 하나되어, 그 결과 하나님을 삶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탄자니아 송교영/오효숙 선교사

1. 멸망으로 달려가는 수백만의 불쌍한 무슬림 영혼들이 참 영생의 구원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2. 제 10기 성경대학 9명 학생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공부하는 동안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에버그린 7학년 아이들이 좋은 성적을 얻고 목표한 학교에 들어가고 믿음으로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들로 성장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에버그린과 노아학교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모두 구원 받고 꿈과 비전으로 성장하여 주님의 사랑과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5. 에버그린학교가 건축이 완공되어 속히 이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복음이 생명수처럼 흘러 나오는 학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요양원에 계신 어머니 영육에 강건함과,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이 성장하고 직장을 얻도록 기도해 주세요.
7. 오효숙 선교사가 지금 말라리아로 고통 중에 있는데 속히 회복되고, 자가면역성 간염이 완치되어서 주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 우리 부부가 성령충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 주세요.

파푸아뉴기니 김운용/남영미 선교사

1. 파푸아뉴기니 부족들과 모국어 성경이 필요한 곳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번역되고 성경책이 들어가는 곳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2. 하나님의 방법으로 '최고의 행복'을 통해 많은 부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 파푸아뉴기니를 자연 재해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새마을 운동이 잘 정착해서 충분한 영양공급과 삶의 질이 향상되게 하여 주옵소서.
4. 파푸아뉴기니의 SIL 본부와 의사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내외 선교사들과의 동역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5. 김운용 선교사에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체력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6. 남영미 선교사가 더 이상 암에 걸리거나 재발하지 않는 건강한 체질로 변화시켜주시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7. 주님께서 아들의 마음과 생각, 언행을 주관하여 주시고, 두려움 없는 믿음,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은혜를 주시고, 장래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미얀마 한규설/김정미 선교사

1. 영육 간에 강건함 주소서
2. 동역자들과 하나되게 하소서
3.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하소서
4. 한글학원에 수강생들을 보내주소서
5. 열매 맺는 사역되게 하소서

알바니아 오판석/정미라 선교사

1. 새해에도 주님과 살롱하며 주님을 잘 따라갈 수 있도록
2. 아니사가 한국에 가서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기를 원하며 또 믿음의 2세대인 피요나와 수엘라가 믿음의 뿌리를 말씀 속에 잘 내릴 수 있도록
3. 여름에 아프리카 탄자니아를 방문케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4. 시몬이가 다음 단계를 선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5. 고 3인 시몬이가 한국 대학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학교와 진로에 대해서 인도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비자승인
2. 언어와 문화에 익숙
3. 겨울을 잘 나도록
4. 영적으로 압도당하지 않도록 기도로 나아가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파나마 GMI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 (3/24-3/27)
문의: 정민 집사 (714-900-4194)
TM: 2/12(수), 7pm, 웨딩채플
- 인도GIGL 9기 (2/21-3/1)
TM: 1/14-2/18, 7pm, 웨딩채플
S/L: 한기홍 목사
렉터: 현윤호 집사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 CUBA AFA 10기(2/2-2/8)
TD, 신학교입학식, 교회방문
S/L: 한기홍 목사
렉터: 케빈 김 집사
문의: 로이 김 집사 (213-999-1737)

- 터키 난민 인카운터 1기 (3/13-3/23)
추가 모집 4명
TM: 2/6(목), 6:30pm 119호
문의: 김태형 집사 (213-393-3215)
- 아르메니아 아라랏 TD #17 (3/16-3/24)
S/L: 백승환 선교사
렉터: 성재승 집사
코디네이터: 박유진 장로
문의: 박유진 장로 (714-334-4858)
- 브라질 AFA #17 (4/28-5/5)
S/L: 송중호 목사
렉터: 김요셉 집사
문의: 김수영 집사(213-446-9514)
O/T: 2/27(목)

3.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4.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5.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6.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2025년 파나마 GMI 중남미 권역 선교대회

과테말라,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쿠바,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등

2025.3.24(월) - 3.27(목)
장소 : Playa Blanca Hotel & Resort, Panama

대상: 중남미 GMI 선교사, 현지 지도자, 은혜교회 성도
팀멤버 모집 및 문의: 정민 안수 집사 (714-900-4194)